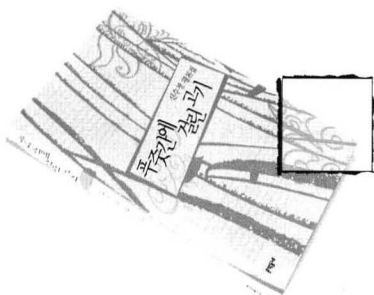


문학평론집 읽기의 즐거움,



편집자도 함께 즐거워했던 기획

조연주 | 문학동네 편집부

가끔, 지루하게 되풀이되는 평범한 일상 중에도 오소소 소름이 돋게 하는 것들이 있다. 기대 없이 찾은 극장에서 본 영화의 한 장면이 그렇고, 불면증 치료제이려니 틀어놓은 음악의 한 부분이 그렇고(결국 수면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상적인 첫 문장만으로도 읽는 내내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소설들이 그렇고, 늘 보던 평범한 풍경이 문득 선뜩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그렇고, 갑작스레 추워진 어느 날의 땀싸한 아침공기가(추위서가 아니라) 그렇고... 그리고 《푸줏간에 걸린 고기》가 그랬다.

책을 읽었다는 사람들로부터 종종 이런 얘기를 듣는다. 평론집을 이렇게 재미있게 읽기는 처음이라고, 처음 원고를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었다. 다뤄지고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한참 열심히 소설들을 찾아 읽던 1990년대의 작품들이라, 처음 작품들을 읽었을 때 느낌들, 경험들이 겹쳐진 것도 한몫 했겠지만, 어쨌든 '재미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평론집이 재미있었다.

보통 화려하다고들 말하는 저자의 수사는 그저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 각 작품이 가진 특성, 혹은 그것이 말하려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해 낸 것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만날 때는 소설 속의 멋진 문장을 만날 때처럼 귀밀이 간질거리면서 팔에 소름이 돋았다. “철부지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어른의 위선을 넘어서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소비사회의 표면을 가볍게 활공”(배수아론)한다거나, “지형지물이 적절하게 배치된 야전장에서 한 무리의 개구쟁이들에 의해 벌어지는 전쟁놀이”(백민석론) 등의 표현은 그 자체로 반짝반짝 빛이 났다. 간혹 작품과는 상관 없

이 비평글 그 자체가 더 빛나거나, 자신이 다루고 있는 작품에 너무 깊이 빠져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글들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랬다.

저자가 그려 보이는 소설의 이미지들, 비유들이 작품들을 읽으며 그려보았던 나(독자)의 그림들과 맞아떨어져서이기도 했지만, 다루고 있는 작품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살짝살짝 드러나는 작품에 대한 애정은 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때로 흑독해 보이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애정이 엿보일 때면 작가라면 제 살붙이와 같은 이 '고깃덩어리'를 저자의 손에 한번 맡겨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였다.

좋은 원고를 책으로 만드는 즐거움은 편집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저자 외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을(어쩌면 저자 자신도 모르고 있을!) 그 보석을, 책이 되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보고 만지고 다듬다 보면 절로 흐뭇해진다. 《푸줏간에 걸린 고기》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게 해준 책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원고인데다 기존의 평론집 포맷을 버리고 멋진 제목(!)에 어울리는 새로운 표지 디자인을 짰다. 저자의 첫 책이라 저자에게도 담당 편집자에게도 더욱 신경이 쓰였고, 그만큼 더 즐거웠던 것도 사실이다. 평론집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겨우겨우 읽어야 하는 재미없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편집자가 느꼈던 책읽기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다.